



“부상병동 KIA에 내가 비타민”

이범호 내야 빈자리 홍재호 공수 활약

최근 7경기 4할 타율·홈런 2개 신종길 질주

1위 고수를 목표로 후반기를 시작했던 KIA 타이거즈가 부상에 발목잡히며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다. 빠른 패배가 속출하고 있지만 주전을 꿈꾸는 선수들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가 KIA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내야수 홍재호와 외야수 신종길은 팬들이 주목하는 야수진의 '희망'이다.

올 시즌 KIA 내야진은 새로운 해결사 이범호와 함께 김선빈-안치홍 '꼬꼬마 키스톤'으로 큰 틀

을 짰다. 이현근과 박기남이 그 뒤를 받치면서 대졸 2년차 홍재호의 설 자리가 좁았다.

팀의 위기가 홍재호에게는 기회가 됐다. 김선빈에 이어 이범호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홍재호에게 내야 수성의 임무가 주어졌다. 수비에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홍재호는 타석에서도 강렬한 모습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홍재호는 지난 3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손맛을 봤다. 많은 타석에 들어서는 못했지만 집중력 있는 승부로 16일 현재 21타수 6안타(1홈런) 0.286 3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홍재호는 “지난해에는 처음 프로 무대에 서는 거라서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나쁜 볼에도 손이 나가고 그랬다”며 “올 시즌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차분하게 볼을 골라내다 보니 실투도 들어오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길도 뒤늦게 질주를 시작했다. 신종길은 전지훈련과 시범경기에서 공



수에서 업그레이드 된 전력을 과시하며 올 시즌 KIA의 외야의 지각변동을 예고했었지만 전반기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계속된 부진에 지난달 29일 결국 2군행 통보를 받았지만 김성현의 부상과 함께 다시 한번 신종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복귀 후 7경기에서 신종길은 19타수 8안타로 0.421의 타율을 기록했다. 16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는 9회말 이재근을 상대로 우측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영봉패를 저지하는 등 최근 7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더해 9타점을 올렸다.

도루도 두 개를 추가했다.

두 선수는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주전들의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KIA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근성 있는 플레이로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

두 선수의 목표는 하나, 팀의 승리다.

홍재호와 신종길은 “올 시즌 많은 활약을 하지 못했고, 시즌도 막바지라서 개인적인 욕심은 큰 의미가 없다”며 “팀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어린이 야구교실

21~22일, 무등경기장

제2회 KIA타이거즈 어린이 야구교실이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무등경기장 실내 연습장과 화순 금호리조트 워터파크에서 어린이 야구교실을 연다.

이번 야구교실은 2011년 KIA 어린이 회원중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능성 티셔츠와 구단 모자가 증정 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kiayjw@hanmail.net)로 하면 된다.

어린이 야구교실은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무등경기장 야구장 실내연습장인 호수관에서 열리며 투구, 타격, 수비 등 3개조로 나누어 순환교육이 이뤄진다.

투구 교육은 클러브 잡는 법과 공 던지는 법 등 기본 자세 및 캐치볼 실습 등이며 타격 교육은 배트 잡는 법 및 스윙 동작 설명, T배팅, 시뮬레이션 배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비 교육은 포구 및 송구 방법, 내야 평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일에는 화순 금호리조트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070-7686-804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랭킹 50위권 11명

한솔 오픈 테니스 출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세계 랭킹 20위권 율리아 괴르게스(독일)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투어 대회인 한솔 코리아오픈(총상금 22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달 초 마감된 한솔 코리아오픈 참가 신청 명단에 따르면 괴르게스 등 세계 랭킹 50위 이내 선수 11명이 출전 신청을 마쳤다.

4월 WTA 투어 포르테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괴르게스는 올해 세계 랭킹 1위 캐롤라인 위즈니아키(덴마크)를 두 번이나 물리친 강호다.

또 2009년 이 대회 준우승자 아나벨 메디나 가리게스(34위·스페인)와 마리아 호세 마르티네스 산체스(35위·스페인)가 참가 신청을 했다.

2009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41세 노장 다테 기미코 크롬(54위·일본)과 2002년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던 엘레나 도키치(73위·호주) 역시 한국 팬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회 토너먼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진수 JSM 아카데미 원장은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에 있는 톱 클래스 선수 1~2명을 초청하기 위해 교섭 중”이라며 “올해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수준 높은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 코리아오픈은 9월19일부터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정상을 향해 한발 한발

17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암벽등반공원에서 열린 성동구 어린이 암벽교실에서 어린이 참가자가 온 힘을 다해 등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 22일 훈련 공개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25)를 앞세운 자메이카 육상대표팀이 22일 팀 훈련을 공개한다.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차 16일 대구에 입성한 자메이카 선수단은 17일 오후부터 베이스캠프인 경산 종합운동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비공개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자메이카 대표팀은 경산시 측에 선수촌에 들어가기 전날인 22일 오후 6시부터 한국 언론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을 경유해 전날 밤 9시 넘어 대구공항을 빠져나온 볼트는 그랜드호텔에 투숙했다.

볼트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다국적 스포츠용품업체인 푸마는 독일 본사에서 직원을 직접 파견해 볼트 관리에 나섰다.

푸마는 이번 대회를 겨냥해 개발한 스파이크가 볼트의 발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메이카 대표팀은 19일에는 경산 종합운동장 앞에 나무를 심는 행사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목포대 2년 연속 우승

전국학생검도대회 단체전

목포대 검도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목포대는 15일부터 16일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 결승전에서 경남 영산대학을 누르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검도회



와 목포시 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교 97개팀이 참가했으며, 대학부에는 18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